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시민 안전 위해
재해위험 수목 제거 나서

정읍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위험 수목 제거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장마를 앞두고 폭우나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주택에 인접해 있거나 산사태위험지에 있는 나무 중 강풍으로 넘어져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나무다. 시는 5월 초 대상지 선정을 통해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42주를 제거하고 산사태위험지에 있는 나무 7주를 정전작업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목들은 크레인, 기계톱 등을 사용해 제거하며 장마 시작 전인 6월 안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를 앞두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

정읍시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다. 수수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사업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063-539-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폭염 긴급대응 종합대책 가동

정읍시, 안전한 여름 위해 9월까지 무더위 쉼터 점검·그늘막 설치 등 추진

정읍시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읍시는 폭염발생 긴급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 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읍·면·동주민센터 등 38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이중 128개소에서 냉방기 점검을 실시한다.

또 긴급상황 시 재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무더위 쉼터 23개소에 구급상자를 배분한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폭염특보 발효 시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에 각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때 이른 폭염이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며 “마울방송, 재난도우미, 재난에·경보시설 등을 활용해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은 오픈마켓 'Qoo10'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정읍 단풍미인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고창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실시

한빛원전 방사능재난 대비

고창군이 지난 31일 오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한빛원전 방사능재난을 대비해 2023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발전소 인접 지역인 상하면을 포함한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과 강호항공고 학생 등 2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또 8098부대,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원전 인접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비상발령 시 계획에 따라 차량을 이용해 구호소인 군립체육관으로 대피했다. 도착한 주민들은 구호소 입장 전 방사능오염 검사 후 체험부스를 돌려보고 방사능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받았다. 고창군은 구호소 내 재난 사진 전시, 방사능 측정 체험관 등을 운영해 주민

들의 방사능재난 이해를 도왔다. 고창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도 운영과 훈련 상황을 지휘하고 비상대응 정보 교환시스템(BRIX)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 훈련이 실시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 점검과 실제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고창군의 방사능 방재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여성고용창출 위한 여성일자리창출 협력망 구축

고창군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15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협력망을 구축했다. 또 이 중 7개 기업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와 함께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연경전자(주)(김정옥 대표) △질마제푸드영농조합법인(장현정 대표) △서울시니어스타우(주)(고창본부(이종균 대표) △주식회사 라온(유승준 대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식회사 라온(유승준 대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확립과 여성인력 적극 채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전북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선 기업 특성에 따라 인턴십지원, 기업환경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창군청 이길수 인재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부안군은 지난 30일 부안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부안군(교육청소년과),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안군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위반 행위와 유흥주점 등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금지 스티커가 오래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다. 부안군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개선활동을 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온라인으로 일본 소비자 만난다

정읍 단풍미인수박, 글로벌 오픈마켓 'Qoo10' 통해 판매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은 지난 28일부터 글로벌 오픈마켓 Qoo10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정읍 단풍미인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정읍 단풍미인수박은 당도 12.5 Brix 이상의 고품질 수박만을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선별해 발송하고 검정수박에 SWT 꽃가투를 수정해 씨가 없고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정읍 단풍미인수박은 그동안 일본 내 수박 주산지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8년동안 꾸준히 수출해 왔으나, 일본산 수박에 비해 수박의 단가가 높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협무역 일본법인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판매를 통해 일본산 수박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일본 소

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진 대표는 “이번 온라인 판매를 계기로 정읍 단풍미인수박의 일본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전문가의 현장컨설팅, 속도관수배, 숙숙안수배 시험재배 등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애호박도 수출길에 오른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 단풍미인 수박은 국내에서도 명품 수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급 농산물”이라며 “일본 산지와의 가격 경쟁 등 수출 어려움이 많지만 일본에서 정읍 농산물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판매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캄보디아 송출국 직업훈련부 고문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지난 3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고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덕섭 군수는 “그간 고창군이 캄보디아와 MOU체결 후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으면서 지역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인력수급으로 농촌인력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보답하는 의미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근로자 무단

이탈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근로자 선발시 나이 제한, 농업 경험 유무, 송출 전 한국 문화 이해와 언어교육 실시 등의 안전이 다뤄졌다. 앞서 고창군은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39명이 입국해 현재 농가에 근로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 60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발과 무단이탈방지에 힘써 농가가 인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